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JENESYS 의 일환으로써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및 사회인 등을 초빙하여,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의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일본인들과의 교류 및 의견교환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시찰, 일본의 동세대와의 교류, 홈스테이,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한국의 대학생 및 사회인 등 10 명

【방문지】 도쿄도(東京都), 도야마현(富山県), 기후현(岐阜県), 아이치현(愛知県)

【일정】

■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

9 월 19 일 (목) 프로그램 설명, 사전학습사항 전달,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

9 월 27 일 (금) 하네다국제공항 입국, 【강의】 '새로운 한일관계' , 오리엔테이션

9 월 28 일 (토) A 그룹 :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TOKYO' 부스운영 참가를 통하여 일본의 일반 시민과 교류 (JKAF:대학생방한단동창조직 회원들과 운영)

B 그룹 :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TOKYO' 취재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9 월 29 일 (일) B 그룹 :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TOKYO' 부스운영 참가를 통하여 일본의 일반 시민과 교류 (JKAF:대학생방한단동창조직 회원들과 운영)

A 그룹 :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TOKYO' 취재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필드워크

9 월 30 일 (월) 도야마현 다카오카시로 이동

【기업방문 및 테마 강의】 닛케이 MJ 상 최우수상 수상 'SEKAI HOTEL 주식회사' , '마을 전체가 호텔' 로 지역상점가 활성화

【교류 및 테마 시찰】 강의 내용에 따른 시찰·그룹별 상점가 취재 및 지역민들과의 교류

10 월 1 일 (화) 기후현 구조시로 이동

【강의】 홈스테이지역인 구조시의 개요에 대해, 【교류】 홈스테이

10 월 2 일 (수) 홈스테이 해산식 후, 아이치현 나고야시로 이동,

【시찰】 리니어 철도관, 성과 보고회

10 월 3 일 (목) 추부국제공항 출국

2. 기록사진



2024년 9월 27일
【강의】외무성 ‘새로운한일관계’



2024년 9월 28일 【교류】‘일한축제한마당 2024 in TOKYO’ 부스 운영



2024년 9월 29일 【교류】‘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TOKYO’ 부스를 공동운영한 JKAF 회원들과



2024년 9월 30일 【강의】도야마현 다카오카시 ‘마을 전체 호텔’로 지역상점가 활성화



2024년 10월 1일 【교류】기후현 구조시에서 홈스테이 대면식



2024년 10월 2일 【시찰】아이치현 나고야시 ‘리니어 철도관 (리니어 주행 체험)’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대학생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에서는 JKAF(대학생방한단동창조직) 분들과 교류하며 부스를 운영하고, 부스를 찾은 남녀노소 다양한 일본 시민들, 다카오카에서는 상가 사람들, 구조에서는 호스트 패밀리 분들 등 많은 일본 분들과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 매우 좋았다. 직접 대화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한일 비교도 할 수 있었고, 일본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한국 대학생

이번 방일에서 JKAF 라는 일본 친구,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가족이 생겨, 정말 행복한 방일단이 되었다. 이번 방일단에서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일본 분들과 교류했는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일본 분들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실감할 수 있었고, 예상보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본 분들,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분들이 많아서 놀랐다. 우리를 통해 일본 분들도 우리의 일본을 향한 마음 등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교류의 축적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귀 일본 친구와 가족들과 계속 교류를 이어 나가면서, 주변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 한국 사회인

일본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런 일본 분들의 모습을 더 많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함께 미래를 향해 아름다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 한국 사회인

이번 일본 방문에서는 수많은 교류를 통해 일본인의 새로운 면을 접할 수 있었고, 처음 방문한 지방 도시에서도 일본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다카오카 지역 활성화에 대해 배웠을 때, ‘블루’를 다카오카의 이미지 컬러로 삼아, ‘다양한 블루를 찾으러 다카오카의 거리로 나가자’는 발상이 참신했다.

4. 일본측 소감 (발췌)

◆ JKAF (대학생방한단 동창조직 :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Tokyo’에서 함께 부스 운영)

방한단으로서 한국에 다녀온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로서 방일단 분들과 함께 ‘한일축제한마당’이라는 한일 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의미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방일단 여러분과 함께 운영한 ‘한국인과 이야기합시다’ 부스에서는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 체험과 교류를 하며 한일관계의 연결 고리가 더욱 깊어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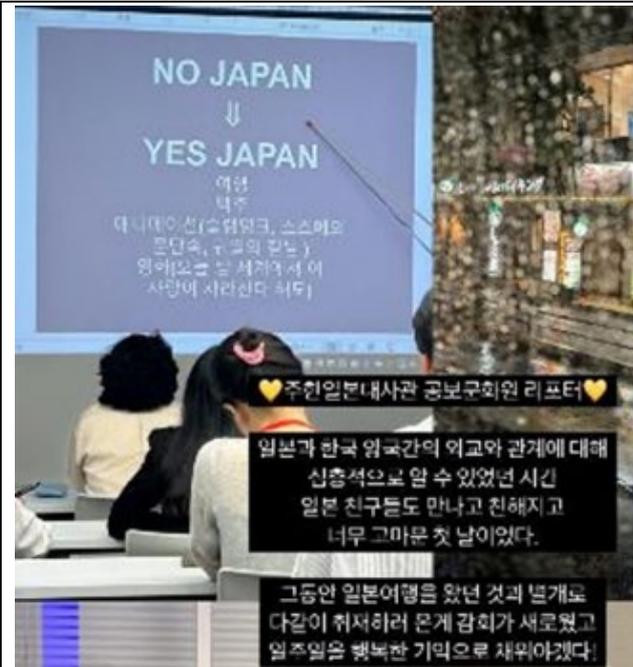
◆ 다카오카기 시찰 관계자

이번에 일부러 다카오카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해외에서의 이러한 시찰은 처음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경험을 살려 더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다시 한 번 다카오카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 구조시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1박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낚시도 하고 요리도 만들며, 밤에는 담력 테스트, 불꽃 놀이, 밤하늘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생각한다. 언어가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교류도 깊어졌다. 조만간 한국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때 이번에 오신 분들과 다시 만날 약속도 했다. 서울에서의 재회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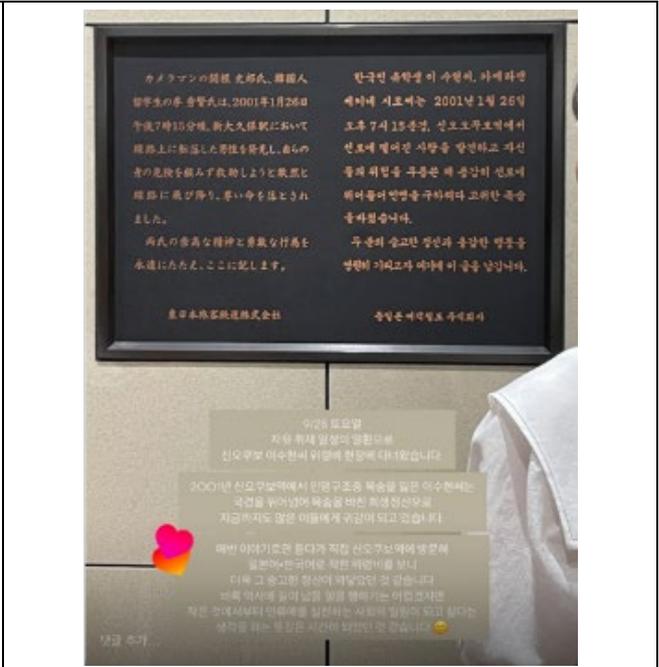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 기사 등



2024년 9월 27일 (Instagram)

(외무성의 강의를 듣고) 일본과 한국 양국간의 외교와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 일본 친구들도 만나고 친해지고 너무 고마운 첫 날이었다.

그동안 일본여행을 왔던 것과 별개로 다같이 취재하러 온게 감회가 새로웠고 일주일을 행복한 기억으로 채워야겠다.



2024년 9월 28일 (Instagram)

취재 일정의 일환으로 신오쿠보 이수현씨 위령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01년 신오쿠보역에서 인명구조 중 목숨을 잃은 이수현씨는 국경을 뛰어넘어 목숨을 바친 희생정신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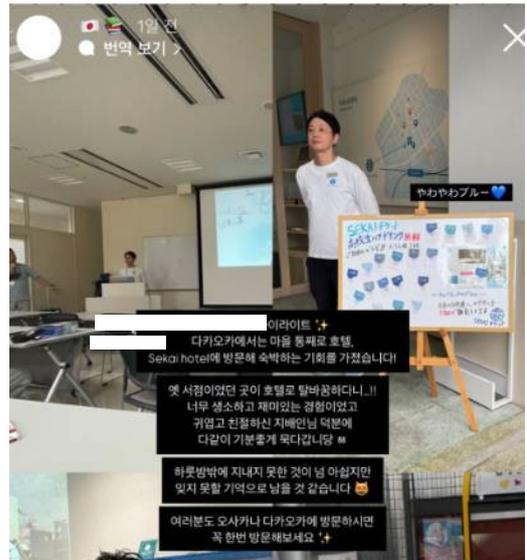
매년 이야기로만 듣다가 직접 신오쿠보역을 방문해 일본어 한국어로 적힌 위령비를 보니 더욱 그 숭고한 정신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가 고마자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일본문화원 리포터들은 현장에서 韓人と語り (한국인과 대화해요) 부스를 운영했는데, JKAF의 진행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주신 분들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K-pop, K-드라마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인에겐 당연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생소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 시골과 키오스크, 비행기에 대한 인식, 할리데이 문화 등 생각치도 못한 토픽으로 대화한 덕분에 양국의 문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본다는 인류학적 인사이트를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카오카에서는 마을 통째로 호텔, Sekai hotel에 방문해 숙박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옛 서점이었던 곳이 호텔로 탈바꿈하다니!! 너무 생소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친절하신 지배인님 덕분에 다같이 기분 좋게 묵다갑니다

하룻밤밖에 지내지 못한 것이 넘 아쉽지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사카니 다카오카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

2024년 9월 29일 (Instagram)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가 고마자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들은 현장에서 ‘한국인과 대화해요’ 부스를 운영하는데, JKAF의 진행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주신 분들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K-POP, K-드라마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인에게 당연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생소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어요. 생각치도 못한 토픽으로 대화한 덕분에 양국의 문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본다는 인류학적 인사이트를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Instagram)

4일차의 하이라이트, 다카오카에서는 마을 통째로 호텔 SEKAI HOTEL Taakaoka에 방문해 숙박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옛 서점이었던 곳이 호텔로 탈바꿈하다니!! 너무 생소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친절하신 지배인님 덕분에 다같이 기분 좋게 묵다갑니다.

하룻밤밖에 지내지 못한 것이 넘 아쉽지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카오카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2024년 9월 28일 (TBS NEWS DIG)
 ‘한일축제한마당 2024 in TOKYO’가 개최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번 방일단 단원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2024년 10월 1일 (기타니혼(北日本)신문)
 “한국의 청년들, 지역재생을 배우다 서점을 개 보수한 숙박시설 시찰 ‘디자인 재미있다’”는 제목으로 본단이 도야마현 다카오카시의 지역 활성화 사례를 시찰하는 모습이 단원들의 인터뷰와 함께 소개되었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 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함)

<p>일본문화원 리포터 10기 A조 액션플랜</p> <p>액션플랜 주원: 김나연, 김민서, 김지혜, 송연진, 정진우</p> <p>10월: 한일축제한마당 취재 부스 운영 및 취재, 한일축제한마당에서의 부스 운영 및 취재 취재 당일 후기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일단 소식을 알리자. 홍보: 방일단과 관련된 소식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p> <p>11월: 의인 콘텐츠 제작 이수현 의인의 이야기와 보립 한국 의인에 대한 콘텐츠 제작</p> <p>12월: 연일 행사 및 한일 문화 콘텐츠 연일 행사 콘텐츠: 일본 연일 행사 및 한일 문화 콘텐츠 제작 위문 및 사제 홍보: 일본 위문활동(이) 권역 홍보 및 일본의 세력 확대 관련 콘텐츠 제작</p> <p>참가 목표: 일본 문화원 리포터로서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며,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늘 리포터로 성장</p>	<p>활동소감</p> <p>방일단 활동은 일본 문화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고,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일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p> <p>이번 경험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일단 소식을 알리자. 홍보: 방일단과 관련된 소식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p> <p>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A조는 감사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겠다.</p> 
<p>일본문화원 리포터 10기 B조 액션플랜 및 소감 - 김상현, 박정민, 조은비, 최수빈</p> <p>의무성과 대사에서 주관한 방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액션플랜</p> <p>10월: 방일 후기 작성 이번 방일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미 있는 콘텐츠로 게시 JKAF의 반상 및 한국 문화 콘텐츠 제작</p> <p>11월: 일본과 지속적인 인연 맺기 일본 도쿄 디자인 페스티벌 방문 및 JKAF와의 만남 방일에서의 다양한 일상을 기록하여 다양한 일본 문화 소개 콘텐츠 제작</p> <p>12월: 다양한 분야의 일본 문화 콘텐츠 제작 JKAF 전시 및 일본어 콘텐츠 제작, 일본 일러스트 작가와의 교류 등장인 지도부 교류를 통해 일본어 스포츠 문화 소개</p> <p>장기적 목표</p> <p>김상현 - 방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일러스트 작업 박정민 - JKAF 전시, 일본을 주제로 하는 블로그 개설 및 콘텐츠 업로드 조은비 - 일본어 및 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고, 방일 경험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최수빈 - 일본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계획</p>	<p>소감</p> <p>이번 방일은 평소 꿈꿔왔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서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p>방일 중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방일 중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이번 방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이번 방일은 평소 꿈꿔왔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서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p>방일 중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방일 중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이번 방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이번 방일은 평소 꿈꿔왔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서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p>방일 중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방일 중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이번 방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p>

【성과 발표】

- 방일단 활동을 통해 일본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 그 중에서도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의 운영과 교류를 통해 일본의 일상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었다.
- 특히 교류할 때 일본인의 행동과 섬세한 의사소통 방식이 인상적이었고,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이번 경험은 우리들의 향후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경험을 살려 한일 양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양국 청년들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액션·플랜】

- 방일단에서 취재한 다양한 내용을 여러 장르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 이수현 씨와 같이 한일 양국에 알려진 의인을 찾아내 콘텐츠를 제작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한다.

【성과 발표】

- 외무성 강연을 통해 한일 교류의 흐름을 알 수 있었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일 문화교류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어떻게 양국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를 JKAF와 함께 운영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 ‘SEKAI HOTEL Takaoka’의 활동을 듣고, 실제로 숙박하며 상가를 취재함으로써 그 방향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구조의 홈스테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일본의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
- 리니어 철도관에서는 일본의 철도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기술을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성장해 나갈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액션·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일본의 생활문화를 비롯한 현지 고유의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리포터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잘 습득한 리포터로 성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단에서 체험한 내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미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발신한다. • 이번 체험 내용을 단원 개인의 전문성에 맞추어 각자의 활동에 활용한다(일러스트레이터로서 향후 창작 활동에 활용, 일본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 활용할 예정 등). •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어 능력 시험에 도전한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